

# 한·미 청소년 글로벌 교류사업 추진

### 전주시-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상호교류 협력 업무협약... 16일부터 청소년대표단 15명 LA 파견

전주시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LA한인회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제임스 안 회장을 비롯한 LA한인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 2019년 체결한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의 지속성을 재확인하고, 그간 추진해 온 차세대간 교류의 협력 범위를 확장키로 뜻을 모았다. 또, 양측은 향후 다양한 교류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를 '전주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원년의 해'로 삼고, 이를 위한 △글로벌마케팅 △전주형 문화융복합 콘텐츠 홍보 △차세대 문화 체험 △전주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더욱 활발한 교류에 나서기로 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오는 16일부터



전주시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LA한인회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제임스 안 회장을 비롯한 LA한인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일 동안 전주시 청소년대표단 15명 이 LA에서 문화교류 연수를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전주시 청소년대표단은 8차 11일 동안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 등 미국 서부지역을 돌며 대학교, 농심 아메리카, 그리피스 천문대, 게티센터 등을 방문해 미국의 교육·

경제·과학·미술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LA 등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청소년들도 향후 전주를 찾아 고국의 문화와 정서를 배우고, 전주지역 청소년과 교류하게 된다. 미국 내 한인 청소년들은 올여름 전주를 찾을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한·미 청소년 글로벌 교류사업을 통해 차세대리더들의 동반성장을 위해 힘써주시는 LA한인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전주에서 열리는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도 글로벌리더들의 성공적인 네트워킹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LA 한인회는 LA와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약 60만 한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한인 동포와 차세대 자녀들을 위한 정체성 확립과 뿌리 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의회와 소공인융합협동조합은 지난 12일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590만원을 후원했다.

## 전주지역 소공인들, 성금 1590만원 기탁

###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의회·소공인융합협동조합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사장 윤방섭)은 지난 12일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의회(회장 송병삼)와 소공인융합협동조합(조합장 김강석)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59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의회와 소공인융합협동조합에 소속된 25개 기업이 함께 겨울철 추위로 힘들어하는 독거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의회는 금속가공 소기업(10인 이하)들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 4월 설립했으며, 제도업·유동업·세무사·백년소공인 등 25개사가 참여 중인 소공인융합협동조합은 2020년 설립됐다.

두 단체는 해마다 소속된 기업들이 힘을 모아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 펼쳐오고 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실공단, 라온체육센터서 고3 수험생 무료 수영강습 운영

전주시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한 고3 수험생들을 위해 무료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험 준비로 지친 학생들이 수영을 통해 심신을 건강하게 단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공단은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일간 라온체육센터에서 수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강 신청은 현장에서 접수하며, 모집 인원은 20명이며, 기초반에서 물적응 후 자유형과 배영 종합 동작을 익히게 된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18일 추첨을 진행하며, 1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수강 등록을 위해선 유효기간이 2024년 2월까지인 고3 학생증과 주소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강습은 22일부터 2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총 10회 진행되며, 강습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0분간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어린이 수영강습 프로그램 상설 운영에 이어 고3 수험생 대상 무료 수영강습으로 지역사회와 상생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CES2024서 전주 드론축구 '주목'

### 미국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고 혁신 박람회서 핫스팟 부상

전주 태생의 드론축구가 세계 최고의 혁신 박람회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2024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전주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쾌속 순항을 시작했다.

CES 행사장 중 하나인 베네치안 엑스포에 설치된 드론축구 코너가 최고의 핫스팟으로 떠오르면서 관람객들의 눈과 발을 사로잡고, 세계적인 미디어들이 앞다퉈 취재 경쟁에 나섰다.

드론축구 경기장인 아래나를 둘러싸고 앉은 관람객은 바다에 앉고, 뒤쪽은 선 채 구경하며 저마다 스마트폰에 신기한 드론축구 경격을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관객들은 "일더풀 드론싸기", "익사이팅", "매직" 등 찬사를 연발하며 팔이 터질 때마다 환호성을 터트렸고, 경기가 마무리되면 선수들



전주 태생의 드론축구가 세계 최고의 혁신 박람회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2024에서 전주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쾌속 순항을 시작했다.

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드론축구는 CES를 찾은 글로벌 미디어의 집중적인 취재 대상으로 떠올라 영국의 BBC방송과 로이터 통신의 기자들이 드론축구의 발상과 아이디어 경기 방법·룰 등을 자세히 캐 물었다. 드론축구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과 호평을 받으면서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관계자들도 한껏 고무됐다.

국제드론축구연맹 회장인 노상흠 캠퍼스종합기술원장은 "영국이 중주국으로 인정받는 월드컵 축구가 지구촌 30억 명이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 잡은 것처럼 대한민국의 전주가 중주 도시인 드론축구를 이어 버금가는 지구촌 레포츠로 키워졌다. 2025년에 전주에서 처음으로 열릴 드론축구월드컵에 30여개국을 접촉하고 있지만 50개국 참가를 목표로 나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우범기 시장은 "혁신의 무대인 CES2024에서 선보인 전주의 세계적 아이템 드론축구를 시작으로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드론 레저스포츠 선도도시 전주의 힘찬 비상을 시작하겠다.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과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역내 우수 기업의 해외 진출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정원산업 발전 이끈다

### 정원식물 지원센터 이전·정원문화센터 운영 등 추진

전주시는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올해 △'정원식물 지원센터' 이전 △'전주지방정원 조성 △'전주정원문화센터' 운영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개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먼저 정원도시 전주의 전초기지가 될 정원식물 지원센터는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 진행되고 있다.

도도도 항공대 인근 2만5600㎡의 부지에 총사업비 54억 원이 투입돼 조성되는 정원식물 지원센터에는 전주형 정원식물 소재를 연구 개발하는 '연구관리동'과 정원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교육실습장', 다양한 초화를 생산·공급하는 '자동화 온실' 등을 갖추게 된다.

시는 오는 2025년 지방정원이 완공되면 인근 아중호수와 연계해 전주를 상징하는 웰니스 관광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속 정원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끼고 여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0월 개관한 정원문화 복합공간인 전주정원문화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원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아열대식물원과 정원 관련 도

/김욱기 기자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포스터

서관, 정원 소품 전시장, 강의실 등을 갖춘 이곳을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원문화 발전을 이끌고, 정원 관련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정원 문화 거점시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에서 개최될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는 '나의 정원, 나의 도시, 우리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전국의 정원산업을 이끌고 있는 120여개의 업체가 참여해 정원산업의 트렌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된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